

임마누엘

동행
순례
베퓌름

성탄절 가정 기도 생활



안내의 말씀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이사야 40:1, 8)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로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서 미처 다 경험하지 못할 초유의 사태를 지금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크나큰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커다란 상실과 슬픔을 서로 위로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답답함과 외로움을 서로 헤아리며 보살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교우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랑과 은총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둠과 불안을 넘어서 빛과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누추하고 가난한 마구간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이들에게 기쁨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특별하고 애뜻합니다. 아름다운 성당에서 함께 모여 성탄을 축하할 수 없으나, 가정과 친구로 모여서 아기 예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합니다.

서울주교좌성 사목단의 도움으로 대림과 성탄을 기도와 성찰, 독서와 예배로 이끄는 길잡이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공회 시인들의 시를 다시 읽으면서 신앙의 절기에 담긴 뜻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여러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단아한 예배로 하나되는 경험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즐거움이 새롭게 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성육신 은총 안에서
하느님과 동행하고
동방박사들의 순례처럼 우리 신앙이 갈 길을 확인하며
우리 삶 곳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베풀고 보살피는 신앙을 되새기는
복된 시간하기를 빕니다.

2020년 12월 성공회 서울교구 교무국

대림절을 마감하며

대림절 Advent

크리스티나 로세티
Christina Georgina Rosetti
1830-1894

이번 대림절의 달은 차고 맑구나
이 대림절의 밤들은 길기도 하구나.
우리의 등불은 해를 넘어서 불타고
그 불꽃은 여전히 강렬하구나.
“파수꾼이여, 이 무슨 밤인가요?”
우리는 울부짖듯이 묻네.
희망은 연기되어 마음에 병이 들고 있으니.
“하늘은 어떤 징조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파수꾼의 말은 여전할 뿐.

짐꾼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일꾼들은 문 안에서 기다리나

이 밤샘의 기다림은 늦도록 길기만 하네
그 보상을 얻기가 느리기만 하네
“파수꾼이여, 이 무슨 밤인가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대답은 똑같이 들리네.
“아직 산 꼭대기에 동이 트지 않았어요.
우리 등잔의 불꽃이 시들지 않았어요.”

서로들 나누는 이야기를 듣네
지혜롭고 인내심 많은 처녀들이 말하네.
“그분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분을 서서 기다릴래요.
낮의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악마의 속삭임,
그들의 날은 희미해 지리니,
그분의 약속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리.”

서로 서로 영혼으로 엮여
불에 불을 붙여 밝히네
“목적지에 다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네, 더 높이 오르라고.
그들과 더불어 먼 길에 지친 우리 발을 쉬리라,
그들과 더불어 우리 집을 지으리라,
그리스도와 머무는 집, 그들도 달콤하나,
주님은 지극히 달콤하니,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더는 이별이 없으리, 더는 고통이 없으리.
멀리 떨어진 이들이 가까이 왔네.
그토록 오래 잃었던 이들을 새로 찾았네,
오래도록 잃어서, 너무도 그리웠던 이들.
사람의 눈은 보지 못했네, 귀는 듣지 못했네,
사람의 심장도 그 안식을 얻지 못했네,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지연된 선한 것들이
지극히 선하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돌아오네.

밤이 길기에 우리는 슬피 울지만,
새로운 날이 떠오를 테니 우리는 웃겠네.
우리는 느리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낙원의 문을 두드리겠네
우리를 위해 우셨던 그분과 만나서 우리가 울고
그분과 머물겠네.
그분을 더는 떠나 보내지 않으리니,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축복하시는 분.

오늘밤 그분과 만나서 울겠네
그분을 더는 떠나 보내지 않으리니
새로운 낮이 염려 가득한 우리의 눈에 들어오리니
따뜻한 기온이 추운 눈을 녹이듯이,
무화과가 꽃을 피우고, 비둘기와 비둘기가
하루종일 노래하리니,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리, “내 사랑아, 모두 일어나라.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대림의 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 (27편)

주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주님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들은 나의 원수, 나의 반대자들,
그 군대 진을 치고 에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마음 든든하리니,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뵈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그윽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니,

주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대답주소서.
이렇게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뵈고자 합니다.
당신 얼굴을 숨기지 주소서.
그 동안 이 종을 도와주시었사오니,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주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주소서.
원수들이 지키고 있사오니 안전한 길로 인도주소서.
원수들이 독기를 뿜으며 거짓 증언하러 일어났습니다.
이 몸을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주소서.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려라.

성서 독서 (야고보 5:7-8)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대림의 기도

침묵

찬양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 곁에 머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우리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새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찢어진 이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닦아 평탄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영광은 이 땅에 머물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기도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주님을 찾는 이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너의 시련과 너의 가난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부요하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의 샘물로 이미 부요함을 깨닫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축복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세례를 나누는 우리가 주님의 새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게 하소서. 아멘. +

성탄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 캐럴 A Christmas Carol

크리스티나 로세티
Christina Georgina Rosetti

1830-1894

절망의 한 겨울에, 서릿발 실은 바람은 신음을 하고
대지는 쇠덩이처럼 서있고, 물은 돌덩이처럼 얼었네
눈은 내리고 눈 위에 다시 눈이 내리고
먼 옛날 절망의 한 겨울에

우리 하느님, 하늘도 그분을 붙잡지 못하고,
대지도 품지 못하네
그분이 오시어 다스릴 때

하늘과 대지는 멀리 달아나겠네
절망의 한 겨울에,
전능하신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곳으로 만족하셨으니

그것이면 충분했네, 그분에게는
케루빴이 밤낮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어머니의 젖과 구유에 놓인 건초만 있어도
그것이면 충분했네, 그분에게는
천사들이 그분 앞에 내려오고
경배하는 소와 나귀와 낙타만으로도

천사들과 대천사들이 그곳에 모이고

케루빔과 세라핌도 하늘에서 무리를 이루었으나

오직 그분의 어머니는 동정의 복락으로

사랑하는 아드님께 입맞추며 경배했으리

가난한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목동이였다면 그분께 양을 드리고,

내가 동방박사였다면 그분께 내 보물을 드렸을 텐데.

다만 내가 드릴 것은

내 심장, 내 마음 뿐.

원시: Christina Georgina Rossetti, "A Christmas Carol"

번역: 주낙현 신부 (2017)



성탄의 기도 1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 - 96편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못 민족, 만백성에게 이를 알리어라.
그 앞에 찬란한 영광이 감돌고 그 계시는 곳에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
힘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민족들아, 지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들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광채 입으신 주님을 경배하여라.

온 땅은 그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이 땅을 든든하게 세우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왕이시다"고 만방에 외쳐라.
만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도, 거기 가득한 것들도 다 함께 환성을 올려라.

들판도, 거기 사는 것도 다 함께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그분 앞에서 즐겁게 외쳐라.
그분은 정의로 세상을 재판하시며
진실로써 만백성을 다스리신다.

성서 독서 - 히브리서 1:1-3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침묵

찬양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여, 예언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렸고,
가난한 이들이 주님 오심을 갈망했나이다.

하늘이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사도들과 순교자들,
온 시대의 신자들도 천사들과 더불어 주님의 탄생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가 인간의 모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능력,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룩함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사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마침기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힘들고 어두운 땅에 오시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과 평화와 기쁨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축복

의로움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 앞길에서 어둠을 몰아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에 감싸여 살게하소서. 아멘. +

성탄을 향하여

성탄 전야 Christmas Eve

크리스티나 로세티
Christina Georgina Rossetti

1830-1894

성탄절은 칠흑같이 어두우나,
눈부신 정오보다 더욱 밝다네
성탄절은 얼음처럼 차가우나
뜨거운 유월보다 따뜻하다네
성탄절은 아름다우니
세상이 보여주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럽다네
성탄절은 예수님을 모셔오기 때문이라네.
이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모셔오기 때문이라네.

대지여, 그대의 음악을 울려 퍼뜨리라.
새들아 노래하라, 종들아 울려라
하늘이 노래로 응답하고
모든 천사가 이내 노래하리니
대지여, 그대의 흠없고 눈처럼 하얀
신부의 예복을 입으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모셔오기 때문이라네
이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모셔오기 때문이라네.

원시: Christina Rossetti (1830-1894) Christmas Eve (1893)
번역: 주낙현 신부 (2018)

성탄의 기도 2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 - 67편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만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땅에서 오곡백과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내리신 복이라.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세상 땅 끝까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성서 독서 - 이사야서 60:16, 18-20

나 야훼가 너를 구원한 줄을 알고, 야곱의 강하신 이가 너를 건져낸 줄을 알게 되리라.

다시는 너의 나라 안에서 황포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와 파괴자가 침입하였다는 말도 들리지 않으리라.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 이름지어 부르고 너의 성문들은 '찬양'이라 이름지어 부르게 되리라.

낮에는 해가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밤에는 달이 너를 비출 필요가 없으리라. 야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하느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다시는 스러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리니, 다시는 곡하는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침묵

찬양의 기도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여,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안에서 빛나시고 온 우주를 비추신 정의의 태양이시니,
죽음의 그늘 속에 누워 있는 모든 이를 비추어 주소서.

주님은 아기가 되어 구유에 누이셨으니,
우리도 어린이의 순수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신 영광의 왕이시니,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살아있는 빵이 되셨으니,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세상의 이름없는 이들과 차별받은 이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주님이시니,
우리도 세상 안에서 너그러운 환대와 사랑을 펼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기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독생 성자의 탄생으로 영원하신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충만한 은총과 진리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축복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

삼종기도 *Angelus*

“삼종기도란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성당에서 이 시간에 종을 3번, 3번, 3번, 9번을 칠 때)에 드리며, 주님의 사람되심을 기념하여 바치는 기도이다” (성공회 기도서 816쪽).

종을 치며 드리는 삼종기도는 여러 관습이 서로 엮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심과 기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시계가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시간을 알리는 수단으로 성당의 종을 쳤겠지요. 그러다가 기왕에 종 칠 때를 이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도를 덧붙였겠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수도원 성무일도가 정착되면서, 매일 8번 긴 기도를 드리면서 시간전례를 준비하는 종을 쳤습니다. 종과 기도는 늘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종을 칠 때마다 신자들도 짧게나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알아차려 기도를 바쳤습니다.

삼종기도는 중세시대 마리아를 향한 공경 신앙이 강조되면서, 수태고지 사건을 기억하는 기도로 발전했습니다. 그 근본 주제는 마리아 공경이 아니라,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삼종기도를 ‘앙겔루스’ *Angelus*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수태고지 사건에서 ‘천사가 알리니’라는 말 첫마디에 있는 ‘천사’(*Angelus*)에서 따왔습니다.

삼종기도에서 주님의 구원사건을 시간과 주제에 따라 기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삼종기도의 시간과 주제

아침 9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기도

낮 12시: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기억하는 기도

저녁 6시: 예수님의 수태고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사건을 기억하는 기도

성탄절에는 원래의 삼종기도에 충실하여 바치면 좋겠습니다.

통상 삼종 기도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알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도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가 천사의 소식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염병 시대의 성찬례와 마음 영성체

전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성당에 모여 공동체 전례를 드리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지만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서로 삼갈 때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영성체 금식)에서 영성체의 신비를 깊이 성찰하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머무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영성체' Spiritual Communion 관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일의 어느 시간, 홀로 또는 가족과 친구로 모여 다음 순서(미국성공회 성십자가수도회 OSC)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나라도 찬양 받으소서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 성령의 힘을 제게 내려 주시어,  
자비로이 제 마음을 씻어 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 성서 독서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요한복서 3:20)

주님께서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웁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시편 23:5-6)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 15:5)

### 통회의 기도

주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죄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의 유혹을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 성찬례를 향한 기억

찬미하올 주님,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제대 앞에 모인 이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봉헌하였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은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삶의 희망과 영광이 되시나이다. 아멘.

---

## 영접의 기도

주님께서 거룩한 성체에 진실로 현존하심을 믿나니,  
지금 이 순간 제가 성체를 몸으로 모시지는 못하오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시기를 청하오니,  
제가 마음과 영혼과 정신으로 주님께 연합하여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막으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소서.  
아멘.

##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 마침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크신 능력으로 제 마음에 오시어 머무소서.  
저의 지혜와 길잡이가 되시어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저의 삶과 행동이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힘을 펼치시어  
주님의 나라를 훼방하는 세력을 누르시고  
평정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축복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시어,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제 마음과 정신을 지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저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

## 아가페 식사 예절

---

아가페 *agape* 식사, 또는 사랑의 식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던 일상의 식탁 친교를 제자들이 되새기며 나누는 식사 예절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아가페 식사는 초대교회 안에서 발전한 성찬례의 근간이 되었으나, 이후에 신학과 의례로 좀 더 풍성해지고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얻었던 성찬례와는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가페 식사 예절은 18세기 초 독일의 모라비아 교회에서 시작되어, 존 웨슬리가 이들과 교류하면서 배운 탓에, 미국 감리교에 널리 퍼졌고, 이후에도 성공회에서도 성목요일 성찬례 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찬례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서, 아가페 식사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작은 모임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드릴 수 있는 식사 예절입니다.



### 식사 예절 순서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거나, 성탄 캐럴을 배경음악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인도자는 모임의 뜻을 소개하고, 손님이 있으면 환영의 인사를 한다. 이 시간에는 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소개에 집중한다.

성서 아래와 제시된 성서 가운데 선택하여 읽는다.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 - 시편 145:8-21

사랑의 선물 - 1고린 13

너그러운 나눔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 2고린 9:6-15

하느님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 - 필립 2:5-11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 1요한 4:7-21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 마태 22:34-40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 - 루가 9:12-17

잔치의 비유 - 루가 14:16-24

생명의 빵이신 예수 - 요한 6:25-35

기도 식탁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가족과 친지, 친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음식의 축복 기도를 한다. 음식을 들거나 잔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

식사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성탄의 실천

---

성탄의 일이 시작될 때

Now, the Work of Christmas Begins

하워드 서먼

Howard Thurman

1899-1981

천사들의 노래가 잠잠할 때,

하늘의 그 별이 사라졌을 때,

동방 박사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목자들이 양떼와 더불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성탄절의 일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

부서진 이를 치유하는 일,

배고픈 이를 먹이는 일,

감옥에 갇힌 이를 풀어주는 일,

나라를 새로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

마음 속에 음악과 노래를 만드는 일.

원시: 하워드 서먼 Howard Thurman,

“Now, the Work of Christmas Begins”

번역: 주낙현 신부 (2013)

## 성탄 마구간 기도

---

마구간은 13세기 성인 프란시스에게 기원을 둡니다. 1221년, 성인은 성지 순례 중에 예수님의 탄생지를 들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마을에서 집짐승들과 뒤엉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성인은 성탄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여물통에 뉘어야 했으니, 세상은 마구간이며, 주님은 가난한 곳에 오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니다. 성인은 돌아와서 작은 동네에 마구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몸에 안아 품었습니다.

70년 후, 프란시스 수도회 출신으로 첫번째 교종이 된 니콜라스 4세는 프란시스 성인의 행동을 되새겨, 모든 성당에 마구간을 설치하고 가난한 이들 사이에 오신 하느님을 경배하며 봉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봉헌금은 오늘날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입니다.

가정에 작은 마구간을 만들거나, 그림으로나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아기 예수를 모시는 마구간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출발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이든 성단이든 마구간 앞에서 성탄일부터 1월 6일 공현일까지 매일 기도하고 헌금하며, 이를 모아 이웃돕기에 쓰도록 성당에 봉헌하도록 합니다.



## 마구간 앞 기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루가 2:6-8).

우주의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나이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등지고 떠났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크신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마구간 앞에 선 우리를 축복하시어,  
주님의 겸손한 탄생을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들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성육신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몸을 움직여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보살피게 하소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주님의 탄생으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어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어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주님의 공현을 향하여

---

### 동방박사의 여행 The Journey of the Magi

T. S. 엘리엇  
T.S. Eliot  
1888-1965

‘추운 길을 헤쳐서 다다랐네  
한 해 가운데 가장 나쁜 시절에  
여행을 하기에는, 이처럼 먼 여행을 하기에는  
길은 폭폭 빠지고 날씨는 매서웠네  
죽도록 추운 그 겨울’

낙타들은 피부가 스쳐 벗겨지고, 발은 쓰리니,  
걸기를 주저하고  
눈 녹은 구렁이에 주저 앉았네.

언덕 위 여름 별장과 그 계단에서  
과일빙수를 나르는 비단 옷 차림 여인들을 생각하며  
후회하던 때도 있었네.  
낙타꾼은 욕하고 투덜대며  
달아나고 술과 여자를 원할 뿐,  
밤에 피운 모닥불은 잦아들고 쉴 곳은 없는데  
도시들은 적의를 품고, 작은 마을들은 불친절하고  
시골 동네는 더럽고 높은 값을 매기고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었네,  
결국은 밤을 새워 가기로 했네,  
토막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귀에 앵앵거리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네  
이 모든 일이 헛되다고 이르는 소리.

새벽녘에 이르러 조금은 따뜻한 골짜기에 다다랐지  
썩인 눈 아래 물기가 흐르고, 풀 냄새가 나는 곳  
흐르는 물과 물레방아가 어둠을 깨우는 곳  
낮은 하늘에는 나무 세 그루가 서 있고  
늪은 백마가 풀밭을 뛰고 있었네  
우리는 포도넝쿨로 싸인 입구를 지나 술집에 다달았네  
여섯 사람의 손이 문 앞에서 은화를 걸고 노름하며  
빈 술통을 발로 차고 있던 곳  
그러나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걸었네  
그리 이르지는 않았으나 저녁에 다달아  
그곳을 발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말하리라.

기억해 보니, 오래 전 일이었네,  
다시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네, 그러나 분명히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네  
우리를 이끌었던 그 먼 길은  
탄생이었나 죽음이었나? 분명히 거기엔 탄생이 있었지,  
증거도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네.

나는 거기서 탄생과 죽음을 보았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이 탄생은  
우리에게 힘들고 쓰라린 고뇌,  
마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처럼.  
우리는 고향, 우리 왕국으로 돌아왔지만,  
여기서도 더는 편하지 않네. 이 낯고 늪은 체제 안에서  
기이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만들어 움켜잡고 있으니,  
나는 또 다른 죽음을 맞아도 좋으리.



원시: T. S. Eliot, "The Journey of the Magi" (1927)

번역: 주낙현 신부 (2018)

## 함께 나누는 기도와 이웃을 위한 헌금

---

<성공회 기도서> 193-218쪽에는 때에 따라 홀로 또는 함께드릴 수 있는 기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속에서 <가정과 개인 생활을 위한 기도>(209-215쪽)에 있는 여러 기도를 반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기도를 기도서에서 찾아, 성무일도 전체, 또는 기도 하나 둘을 선택하여 자주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을 위한 특별 헌금도 기억해 주세요.

|            |          |
|------------|----------|
| 은혜를 구하는 기도 | 기도서 155쪽 |
| 아침 마침기도    | 기도서 156쪽 |
| 낮기도의 여러 기도 | 기도서 162쪽 |
| 평화를 위한 기도  | 기도서 168쪽 |
| 보호를 구하는 기도 | 기도서 168쪽 |
| 밤기도의 두 기도  | 기도서 177쪽 |

### 성 패트릭의 기도

나는 오늘도 일어서나니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하느님의 지혜로  
나를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눈으로  
나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의 귀로  
나를 변호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손길로  
내 앞에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의 길로  
나를 지키시는 하느님의 방패로.

하느님의 천군으로 나를 구하시니,  
악마의 올가미에서  
악한 행동의 유혹에서  
어디서나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서  
구원하시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내 밑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나이다.  
그리스도는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왼편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네.  
그리스도는 고요함 속에 계시고, 위태로움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내가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나를 들어주는 모든 귀 안에 계시네.

나는 오늘도 일어서나니,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부를 때에  
모든 우주의 창조주 하느님,  
그 사랑이신 분의 삼위를 믿을 때에,  
그 일치이신 분의 하나됨을 고백할 때에.  
나는 오늘도 일어서나니.